'호남통합신당' 인물난·지역 한계 극복 관건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제3지대 통합 논의 착수
'호남당 회귀' 비판 불가피
새 미래 비전 제시 미지수

손학규 "3지대 통합까지가 내 역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통합을 통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총선 판을 뒤흔들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인 전반적인 평가다. 당장, 중도 및 무당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부재한데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과 중진 의원들이 창당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지 명확치 않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이 호남이라는 지역적 구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이 성공적으로 창당된다면 수도권 승부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 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상당한 판도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변수**=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로 꼽힌다. 손 대표는 5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지대 통합과 새로운 미래세대 통합이 끝나면 저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제3지대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바른미래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들은 손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제3지대 통합 협상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손 대표에게 뒤로 물러설 정치적 명분을 줘야 하고 손 대표도 헌신적 모습을 보이는 길만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의 방정식을 푸는 공식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제3지대 통합 논의는 '정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이전투구'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노욕의 정치인'이 아닌 '정치 원로'로 남기 위해서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손 대표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비전**= 제3지대 신당이 과연 미래 세대를 품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일단 정치권 밖의 전문가 그룹과 젊은 세대 그룹은 제3지대 신당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민심의 눈 높이에 맞는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에 미래 그룹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등 당내 지분의 과감한 양보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세대 교체에 중진 의원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가 난제다. 현재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당내 현역 의원들만큼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사들이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통해 인적 쇄신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파괴력은 의문**=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이뤄지더라도 총선 판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과 안철수계 의원들이 대거 이탈, '국민의 당 시즌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 기반이 없는 '호남당'으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이 성공적으로 창당된다면 전체 총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 있고, 중도·무당층의 표심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호남의 제3신당 현역 의원들과 후보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와 제3지대 신당 현역 의원들간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호남의 총선 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세대들이 대거 합류해 수도권 등에 출마한다면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상위 20%도 지지율 낮으면 공천 배제

현역 경쟁력 평가에 당 지지율 참고해 후보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의원도 적합도(지지율)가 당 지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위 20%인 국회의원(22명)의 경우에는 정량평가인 적합도 외에 정성평가도 강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든 상위 20%를 차지했든 지 간에 누구든 적합도가 분명하게 낮게 나오면 극약처방(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라면서 "혼자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에 대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앞으로 상당히 파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 공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면밀하고 철저한 후보 경쟁력 검증 없이 그냥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쟁력 평가의 기준으로 당 지지율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40% 정도의 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후보 지지율이 이보다 낮으면 전략 지역 선정이나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는 정량평가인 적합도 조사 40%와 정성평가 60%로 구성되는데 하위 20%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통한 정무적 판단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성평가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 준비단장에 남기명

정부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위촉하고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준비단장 위촉에 이어 오는 10일 준비단을 정식 발족할 방침이다. 준비단 규모를 10여명 안팎으로 구성한다는 구상 아래 각 부처와 근무 인력 파견을 두고 협의 중이며, 이번주 중 인적 구성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정부서울청사 내부에 사무실을 마련될 예정이며, 10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윤영덕 "정책·비전, 유튜브로 실시간 전달"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중앙당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 시 까지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의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인터넷방송을 통해 인물 소개, 정책 홍보, 정치적 견해 및 비젼 등을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두암동 공원 소독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구 두암동 선거사무소와 인근 근린공원을 대대적으로 방역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광주에서 2명의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방객이 많은 선거사무소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우산근린공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했다. 앞으로도 소독 스프레이를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방역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보건당국에서는 '과잉 대응'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빈 "광주시립의료원 반드시 설립하겠다"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의료복지 2호 공약으로 광주시민의 건강·행복권을 견인할 '광주시립의료원 설립'를 내놨다.

이용빈 후보는 "광주는 6대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이고, 3차 의료기관은 환자가 몰려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해법과 긴 호흡의 조치로 광주시립의료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립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서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영역의 빈틈을 메워주는 등 지역의 필수의료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광산구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더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한 '7대 광산 혁신 솔루션' 7번째인 '광산 의료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산에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광산은 물론 장성, 담양, 함평, 나주 등 광주의 산단과 연계되어 있는 전남지역까지 3차의료기관 원거리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암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망·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효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완료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접 준주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천변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접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종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선 있고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가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